

입관 예배 기도문

입관 예배 기도문

입관 예배 기도문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나는 순간에 드리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은 고인의 육신을 관에 모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순간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장례 문화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며 더욱 의미 있는 입관 예배가 드러지고 있습니다.

입관 예배 기도문 1 - 천국 소망의 기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데다” (시편 116:15)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가족의 입관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인의 몸을 관에 모시며 마지막 작별을 고향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생을 모두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고인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고 주님 곁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과 사랑의 행실들이 우리에게 큰 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도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이별의 아픔이 크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남은 생애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관 예배 기도문 2 - 가족 위로의 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슬픈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고인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음이 무너지려 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빈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리움이 밀려와도,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 입관되는 고인의 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기쁜 재회를 나누게 하옵소서. 남은 가족들이 서로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관 예배 기도문 3 - 부활 소망의 기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를 관에 모시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절망이 아닌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고인이 평생 신실하게 섬겨온 주님께서 이제 그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겨진 우리들도 같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지만, 그날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관되는 이 순간부터 부활의 아침까지, 고인을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변화된 몸으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관 예배 기도문 4 - 신앙 유산의 기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온 신실한 성도를 오늘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고인을 위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헌신하는 성도로,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인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가 보여준 기도하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섬기는 정신이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입관하는 이 순간, 고인의 몸은 흠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주님의 충성된 종을 천국에서 상급으로 맞아주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고인이 남긴 신앙의 모범이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입관 예배 기도문들은 고인을 향한 마지막 작별과 함께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각 기도문은 상황과 고인의 삶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관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예배 순서와 기도문이 필요하시다면 [금란마을교회 주일예배]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